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18 주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2008년 5월 12일 ~ 5월 24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287, 20, 517, -, -, - (영 387, 23, 711, 381, 723, 903)

성경: 마태복음 13:1-52; 고린도전서 3:1-23; 이사야 36:1-39:8; 고린도후서 12:1-21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18 주 :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 ☞ ☞ ☞ ☞ 월요일 ㄹ ㄹ ㄹ ㄹ ㄹ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시편 42:7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 마태복음 13:52

52.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활을 삶

시편 42편 7절은,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다. 깊은 곳에서 부르는 것만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응답을 불러낼 수 있다. 얇은 것은 아무것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만질 수 없으며, 피상적인 어떤 것도 내적인 부분을 만질 수 없다. 오직 깊음만이 깊음에 응답할 것이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 어떤 것도 깊음을 만질 수 없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만이 우리 안의 깊은 곳에 응답할 수 있다. 어떤 곳에 가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를 만지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깊은 곳에서 나온 어떤 것이다. 만약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도움은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는 깊음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른 이들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없다. 만약 우리의 깊은 속 가운데에서 도움이나 유익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깊은 곳에서 그 어떤 것도 내 놓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깊이 파지 않을 때 다른 이들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내뱉는 말

이 깊은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깊은 속을 만질 수 없으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얻는다 할 지라도 그들을 잠깐 동안만 울게하고 행복하게 하고 흥분하게 할 뿐이다. 오직 깊은 만이 깊음을 부른다. 피상적인 표현은 다른 사람의 깊은 속을 만질 수 없을 것이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6:1上, 3-4上, 6上, 21**

-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
-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 4.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
-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
-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깊은 뿌리**

말씀을 전파하고 받는데 있어서의 한 가지 원칙이 주님의 씨 뿌리는 예화에서 볼 수 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며, 어떤 씨는 좋은 땅 위에 떨어진다.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받는 네가지 다른 종류를 보여 준다. 주 예수께서 이 다른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돌밭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표면에 약간의 흙이 있으나 밑에는 돌들이 있다. 이런 땅에 씨가 뿌려지면, 곧 싹이 나지만 해가 나오자마자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인하여 마르게 된다.

무엇이 뿌리일까? 땅 아래에서 나타는 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이 잎인가? 그들은 땅 위에서 나타나는 성장이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뿌리는 숨겨진 생명이며, 반면에 잎들은 표현된 생명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문제는 그것이다. 많은 드러난 생활이 있지만 비밀한 생활은 극히 없다. 달리 말하면 숨겨진 생활이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은 수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질문 하겠다. 당신의 생활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외적인 일들을 강조한다. 그렇다. 선한 일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의 표현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생활은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가? 만약 당신의 영적 생활이 노출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무런 뿌리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모든 미덕들이 사람 앞에 드러나거나 사

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더 있는가? 만약 당신의 모든 체험들이 드러났다면, 당신의 모든 성장은 위로 향한 것이며, 아래로 향한 것은 없다. 만약 이렇다면 당신은 뿌리가 없이 오직 잎만 있는 사람이며, 흙이 얇은 땅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몸의 생활을 갖기를 배워야 한다. 반면에, 주님에 의해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생활은 개인별로 구별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주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측량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특징적인 특성을 잃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특별한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특별하게 위임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산상에서 주 예수께서 드러내신 것은 매우 주목 할만한 것이다. 한편으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4)라고 하셨다. 그것은 공개되어 있다. 반면에 주님은,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을 은밀한 중에 하라. ...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 6:3-4, 6). 또 한편으로,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대중적인 직업을 해야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의 눈으로부터 당신을 감추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모든 미덕들을 나열하는 그리스도인과 그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시험과 유혹의 날에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 년간 주님의 자녀들이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우리의 체험이 대중의 눈으로부터 숨겨졌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바란다. 만약 사람에 의해 알려진 것이 제하여져 버린다면 얼마나 남아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밑으로 뿌리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2:15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 고린도후서 12:1-4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년 전에 그가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깊은 체험들

고린도인들에게 쓰면서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고 후 12:1)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적으면서 그 자신을 「무익하나마」 (헬라이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자랑을 하여야만 하였다. 그는 「주님의 이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할 책임이 있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태도이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과 계시의 시험에 서지 못한다. 약간의 체험이 있기만하면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된다. 바울은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언급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언급했는가? 그는 어떤 자들이 그의 사도직분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그의 모든 계시들을 드러냈는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년 전에 그가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 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 체험을 십사 년 후까지 누설하지 않았다. 바울의 속이 얼마나 깊었는가!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을 칠 년 동안이라도 숨겨 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십사 년 동안 바울은 그의 체험을 전혀 누설하지 않았다. 십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십사 년 동안 사도들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 바울의 뿌리는 땅 속으로 깊은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바울, 당신의 십사 년 동안의 체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기 바란다. 삼층천에 대한 당신의 체험을 말해보라. 그것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알도록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

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3-4절)라고 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의 체험은 그 뿌리를 드러내지 않았다. 여전히 아무도 그 체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뿌리에 관한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바울의 일을 갖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바울의 「뿌리」를 가져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바울의 외적인 행위를 갖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바울의 내적 생명을 가져야 한다. 만약 당신이 바울의 체현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바울의 비밀스러운 체험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불행은 그들이 어떤 영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감추어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주 작은 체험을 하자마자, 그들은 그것을 떠벌인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생활을 산다. 아무것도 그들 안에 숨겨진 것이 없다. 그들은 아무런 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체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 깊은 것을 갖게 하시기를!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이사야 38:17, 20

17. ...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피상적인 생활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의 소식이 바벨론 궁에 알려졌을 때, 사자가 히스기야를 위한 서신과 선물과 함께 보내졌음을 들어 알고 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는 은혜의 시험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2절)고 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는 놀랍게도 그의 병이 치료되었으며 의심할 바 없이 자긍심을 느꼈으며 그와 같이 경이로운 체험을 한자가 세상에 거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러나게 한 것(사 38:8)과

같이 그들이 나음을 받은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받았을까? 그가 원기 왕성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의 다루심을 통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의 천연적인 생명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뿌리들이 드러났음은 분명하였다. 히스기야가 알았고 가졌던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드러난 것 때문에 이사야는 그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9:5-6)고 말하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것의 양은 우리 자신의 손실의 양이 될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것들의 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 양이 될 것이다. 이것은 확고한 것이며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을 감추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마음속의 즐거움을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의 보물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준 것과 같다.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많은 형제들이 아프게 되며,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은 그들의 간증을 한다. 나는 내가 어떤 병-치명적이지 않은 병-에 걸렸으면 좋겠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면 나는 다음 간증 집회에서 무언가 말할 것이 있을텐데.』 치료에 대한 이 형제의 동기는 간증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체험을 찾고 있다. 아! 이런 피상적인 종류의 생활은 우리에게 중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며, 영적진보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한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13:44**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 **고린도전서 12:11**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드러내 보이지 않고 간증함**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여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하였으며, 세대를 걸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간증을 하는 것이 하나이며, 체험을 보임으로 기뻐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간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걸림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갖게 되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인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갈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들이다.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증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여야 한다. 간증은 식후 대화같은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숙덕거릴때 영적인 풍성이 새어 나간다. 주께서 그와같이 인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증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간증하여오나 그는 십사 년 전의 그의 체험을 가벼이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십사 년 동안 그의 체험을 숨겼으며,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몰랐다. 심지어 그가 그의 체험에 대하여 말할 때조차도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 체험만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연관짓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가 계시를 받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실만을 언급하였다. 그는 그가 들은 말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삼층천에 대한 것은 여전히 비밀이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보물인가? 무엇이 우리의 금이고 은이고 향료이며 보배로운 기름과 보물들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금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며 은은 십자가의 구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다. 향료는 우리의 상처의 결과이며, 보물들은 왕국과 관련한 것이며 병기고는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역사이다. 이 모든 것들은 교리가 아니며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과의 교통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잡는다. 그것에 대하여 느슨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간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체험들은 감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다. 많은 영적 체험들은 감추어져야 하며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가복음 5:29下**

29. ...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 **에베소서 4:29-30上**

-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우리의 체험 중 어떤 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있을 필요가 있다

주 예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간증을 하시지만, 절대로 말을 많이하지 않으신다. 간증을 하는 것이 하나이며 말이 많은 것은 다른 것이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였으며 치료한 이야기를 숨길 것을 요구하셨다. 이 명령은 마가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다.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막 5:19)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할지 모르나,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뉴스와 같이 퍼뜨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 뿌리가 없는것을 보여줄 뿐이다. 뿌리가 없으면 어떤 보물도 없다. 그것은 아무런 숨겨진 생활이 없고 숨겨진 체험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체험 중 어떤 것은 숨겨진채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보물을 보인다면 사로잡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과 드러남은 함께 가며 영적 메마름과 드러남 또한 함께 간다. 만약 간증을 하여야 한다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사랑을 하여야 했던 바울처럼 하여야 한다(고후 12:1). 사탄의 공격은 종종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온다. 어떤 종류의 노출도 우리를 손실로 이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한다. 그러나 많은 치료의 간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사람들이 간증을 한번 한 후에 똑같은 것으로 다시 공격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뿌리를 감추는 자들을 덮으시며 그들의 뿌리를 보이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감추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감추고 있는 것을 보호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누린다.

같은 원칙이 우리 일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광고하기 위

한 것이나 선전하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노출한다면, 사망의 손길이 거기에 즉각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손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낸 정도에 상응할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세자마자 사망이 엄습했다(삼하 24).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같은 노출에서 옮기시기를.

◆ 오직 우리 안의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함

주님과 함께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든지 감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다만 하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드러내시고자 움직이신다면 감히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형제와 어떤 체험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감히 그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한가지 법은 교통이다. 이 법을 제제한다면, 흐름은 멈춘다. 긍정적이어야 하고 부정적이지 말아야 하며 다른자들에게 생명을 사역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루종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들에 몰두한다면, 이 수다스러움과 노출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공격 받게 열어주게 된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체들 가운데 생명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감추어진 부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체험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요를 배워야 한다고 확신한다. 뿌리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뻗어가게 하고 뿌리를 아래로 내린다면 우리는 「깊음이 깊음을 부르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속 생명의 깊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풍성들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생명들이 깊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내적 존재가 만져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며 빛비춤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깊음이 깊음을 만질 때 깊음이 깊음에 응답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에 깊음이 없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생명들에게 오직 피상적으로만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오직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 추구 자료 ◆

(주) 인용된 글은 위치만 니의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Deep Calls Unto Deep)」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강조

를 위하여 굽은 글자나 밑줄 등을 더하였습니다.

제 3 부: GTA 권속 교동

1. 교회 생활 안에서의 체험

2. 기도의 부담

1. 주님이 이번 Victoria Day 주말 특별집회를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어권은 7 Gretna에서, 중국어는 몬트리올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2.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격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친구들을 초대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 가운데 건강한 관계를 건축하기를 기도합니다.
3. 토요일 외부 활동을 갖게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Elora 계곡에서 한학년을 마치면서 약 30 여명이 함께 모임 예정입니다. 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소식 및 안내

기타 안내

a. 주일 집회 메시지 비디오

웹사이트 www.churchintoronto.org에서 주일 집회의 메시지 비디오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집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8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tna Hall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t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tna	Tuesday, 7:30 PM	소그룹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한국어 가정 소그룹)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
Web Page	www.churchintoronto.org		Web Pag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